

# 남방큰돌고래 제주 밖 첫 발견... 동해서 출현

국립수산과학원 강릉 일대서 어린 개체 한마리 확인  
다큐제주 “무리 없어 제주나 일본 해역서 표류” 추정

그동안 제주 해안에서만 확인됐던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외 해역에서 첫 발견, 최근 강릉 바다에서 출현해 화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최근 강릉항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돌고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 남방큰돌고래임을 공식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약 120마리가 정주하는 계곡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제주

외의 해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확인된 남방큰돌고래는 일명 ‘안목이’로 특정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큰돌고래류 특유의 온순한 성격과 높은 호기심 때문이다. 다만 선박 스크류에 의한 부상과 그물이나 낚시줄 등 폐어구 등에 몸이 감기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고래연구소는 남방큰돌고래와 교감하기 위해 접근하거나 소리



지난 1월 30일 수중 촬영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모습.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제공

북방한계선인 점, 그리고 깊은 수심보다는 낮은 수심을 좋아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해역에서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주나 일본 해역의 무리에 속해 있다가 컨디션 난조 등으로 2~3 일이면 다른 해역으로 표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주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2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  
제주대 학생 124명 최종 합격

202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제주대학교 학생 124명이 최종 합격했다.

제주대는 이번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주대 사범대학 103명, 교육대학원 8명, 교직과정 13명 등 총 124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합격자 수인 86명보다 38명 증가한 수치다.

제주대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첨단 교육 환경 구축, 교육학 특강 및 현장 교사 초청 교수법 특강, 현장교사 수업 실연 맨토링 등 체계적인 임용시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주대 사범대학은 최근 발표된 제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전국 4개 대학이 선정된 2026학년도 교육실습협력학교 역량강화 사업 운영기관에도 이름을 올리며 교원 양성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채현기자

독자 제보 750-2232



허수아비의 하루 11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한 농경지에 설치된 허수아비 앞에서 흰뺨검둥오리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위기가구 신고하면 1년 최대 30만원 포상금

신고 가구 수급자 선정 시 건당 5만원 지급

당장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제주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4년부터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고자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통·리장, 공무원 등과 같은 신고 의무자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 가구 당사자와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 가구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올해 1771억 투입 학교 신·증설 등 나선다  
도교육청, 전체 사업비의 36% 645억 조기 집행

제주도교육청이 177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시설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전체 시설사업비 1771억 원 중 36%인 64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130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4%를 달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학교 신증설 779억 원, 다목적체육관·학생기숙사 증축 및 단성중·남녀공학 전환 258억 원, 교실·유치원 증개축 167억 원 등이다.

주요 신설 사업으로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제주첨단초·중학교, 서귀포중학교, 제주마리고등학교와 각각 2028년 3월, 2029년 3월 개교 목표인 (가칭)오등봉초,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등이 있다. 현재 제주첨단초·중학교의 공정은 15%이며, 서귀포중학교는 4%이다. 오등봉초는 설계가 95% 진행됐으며, 제주마리고는 설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461억 원, 학교 급식 환기설비 등 환경개선 51억 원,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55억 원을 투입해 조기 발주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함께 키우는 ‘마을키움터 사업’ 지속 추진

도교육청, 17곳 확정·기관별 최대 1250만원 지원

2018년 이후 8년째... 지역 협력 돌봄 내실화 도모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제주 ‘마을키움터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마을키움터 운영기관 17곳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을키움터는 2018년 시작됐으며, 학교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마을키움터 사업은 올해 정책 변화에 맞춰 ‘온동네 초등돌봄·교育’ 체제로 개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모·심사를 통해 문화·예술·체육·전통놀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문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제주과학문화협회, 신산마루 다함께돌봄센터, 마음더하기,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도련다함께돌봄센터, 선흘중앙교회, 한동리 공부방, 삼도다함께돌봄센터, 푸른다함께돌봄센터, 김만덕다함께돌봄센터, 나도 다함께돌봄센터,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온기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스튜디오 꿈밭, 제주인권강사협회, 동백동산

새마을작은도서관, 사랑숨결교회 등 17곳이다.

이들 기관은 방학·재량휴업일·주말 등 돌봄 공백 시기에도 문화·예술·체육·과학·전통놀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돌봄기관 간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

도교육청은 기관별 최대 1250만 원을 지원하되 학생 수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학교 돌봄 대체 기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김채현기자



부영 사랑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

丙午



조합장 정기철 올림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협 금융자산

1조원 달성  
예수금 5,500억 / 대출금 4,800억

상임이사 강창익

비상임이사 오창악, 현순자, 오순태, 강경조, 현상우, 송인선  
송성규, 이왕진, 김두홍, 이대성, 김남우, 한지봉

사외이사 김충의

비상임감사 이광신, 현웅택

조합원님과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